오랜 겨울 가뭄 '산불 비상'

광주·전남 이달에만 54건…지난해의 8배나

겨울 가뭄이 계속되면서 산불 비상이 걸렸다.

20일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광주지역에서 17건, 전남지역에서 3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1건, 전남 6건에 비해 무려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봄철이 가까워지면서 강수량과 습도는 낮고, 기온이 올라가는 데다 바람까지 많이 불기 때문이다. 또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을 소각하거나 정월대보름(21일)을 전후로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 등이 자주 벌어지는 것도 이유다.

지난 17일 오후 1시25분께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산마을 인근 야산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0.3ha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다. 또 지난 15일 오후 6시54분께 광주시 남구 덕남동 덕남정수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등 2ha 가량을 태우는 등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여수와 광양지역의 실효습도가 29.5%로 관측돼 지난 11일부터 건조주의보를 발령됐고,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실효습도가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실효습도는 지난달 20일께 광주·전남지역에 적은 비가 내린 뒤 한 달째 비와 눈이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광주는 지난달 51.5㎜를 기록했던 강수량이 2월 들어 0.1㎜로 급감했고, 장흥과 해남 0.1㎜, 순천 0.3㎜, 목포 0.6㎜, 진도 0.7㎜ 등 대부분 전남지역의 2월 강수량은 1㎜에도 못 미쳤다. 여수, 고흥, 완도, 흑산도 등지에서는 눈이나 비가 전혀 오지않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실효 습도**=풀과 나무의 건조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산불 위험도를 제시할 때 활용된다. 35% 이하면 산불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돼 건조주의보가 발효된다. 50% 이하면 불이 나기 쉽고, 40% 이하에서는 불이 잘 꺼지지 않으며, 30% 이하에서는 자연상태에서도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건조한 날씨 계속 다음주 중반에 비

광주·전남지역에 산불비상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다가 다음주 중반 비가 내리면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고기압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날씨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26일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특히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의 경우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의 영향을 덜 받아 다른 지역보다 습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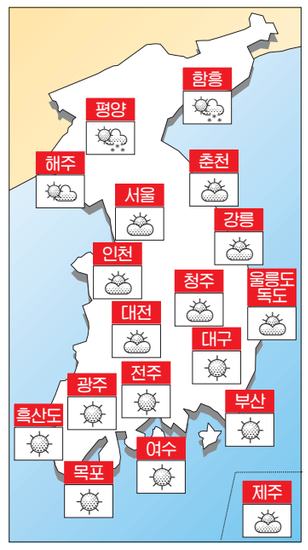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휘영청 대보름달

2월 21일 (음 1월 15일) ◇전국날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 조금	-1~13℃
목 포	구름 조금	1~12℃
여 수	구름 조금	3~12℃
완 도	구름 조금	1~13℃
구 례	구름 조금	-3~13℃
해 남	구름 조금	-4~12℃
장 흥	구름 조금	-4~13℃
고 흥	구름 조금	0~13℃
순 천	구름 조금	-4~14℃
영 광	구름 조금	-3~10℃
진 도	구름 조금	-3~13℃
전 주	구름 조금	-2~12℃
남 원	구름 조금	-6~13℃
흑산도	구름 조금	4~9℃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목 포 밀물 02:07 14:46 썰물 07:28 19:59
여 수 밀물 09:33 21:41 썰물 03:07 15:33

▲해뜸 07:13 ▲해짐 18:20 ▲달뜸 18:32 ▲달짐 07:0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날 씨						
최저/최고	2/11	-2/8	-3/7	-1/6	3/6	-2/7

봄을 부르는 대학 새내기들

대학 교정엔 벌써 봄이 찾아왔다. 2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잔디밭에서 공대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한데 모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인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진행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모든 합의재판부 여성법관 배치

광주지법, 배석판사도 3명으로 늘려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모든 합의재판부에 여성 법관을 배치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합의재판부의 배석 판사를 늘리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20일 "이번 법관 정기 인사로 여성 법관이 대폭 증원됨에 따라 수석부를 제외한 모든 합의부에 여성법관 1명 이상씩을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8년 법관 사무분담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충실하고 심도있는 재판을 위해 현재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일부 재판부에 인원을 추가해 모든 합의부를 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장전담 판사가 개인회생 및 파산업무 일부를 담당하던 것을 폐지하고 영장재판과 형사 단독 재판만 집중하도록 하는 등 업무 중복도 피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종래 11개 재판부에 나눠져 있던 업무를 8개 재판부로 통합하는 한편, 법인회생사건 담당 판사가 개인회생사건도 담당토록해 업무의 통일성을 높였다.

이밖에 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건을 더욱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형사 단독 법관을 1명 증원해 부인사건 전담부에 추가 배치했다.

최인규 공보판사는 "이번 사무분담 개편은 기존 물적·제도적 기반은 최대한 유지하되 법관이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이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동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청소년 흡연 늘었다

지난해보다 1.7% 증가…음주율은 줄어

■ **음주율** (단위:%)

순위	시·도	음주경험
1	인천	51.1
2	강원	50.4
3	울산	50.1
4	충남	48.9
5	경남	48.3
6	서울	47.4
6	부산	47.4
8	경기	47.2
9	전북	46.5
9	**전남**	**46.5**
11	대구	43.5
12	대전	43.2
13	**광주**	**42.6**
14	충북	42.3
15	경북	41.2
16	제주	32.0
평균		46.6

■ **흡연률** (단위:%)

순위	시·도	흡연률
1	충북	14.6
2	충남	14.3
3	**광주**	**13.9**
3	**전남**	**13.9**
5	인천	13.7
6	경기	12.1
7	경남	11.4
8	서울	11.2
9	경북	11.2
10	전북	11.1
11	강원	10.5
12	대구	10.2
13	대전	9.5
14	울산	9.2
15	부산	8.8
16	제주	4.6
평균		11.6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의 흡연율은 높았지만 음주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청소년 1만3천721명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등 청소년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흡연율은 11.6%, 음주율은 46.6%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흡연율은 지난해 9.9%보다 1.7% 올랐으며 음주율은 47.7%보다 1%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흡연율은 각각 13.9%로 전국 16개 시·도 중 충북(14.6%)과 충남(14.3%)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6~9개비가 11.9%로 가장 많았고 ▲2~5개비가 11.4% ▲1개비 미만이 11.1% 등 순이다.

반면 이 지역 청소년 음주율은 하위권 수준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의 음주율은 각각 42.6%와 46.5%로 인천(51.1%), 강원(50.4%), 울산(50.1%), 충남(48.9%), 경남(48.3%) 등에 이어 13위와 9위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하루 평균 음주량은 소주 1~2잔이 56.1%로 가장 많았고 ▲3~4잔 15% ▲5잔 8.4% ▲1병 7.7% ▲2병 3.3% ▲3병 이상 2.1% 등의 분포를 보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유해환경감시단 등 260여개 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율정화 활동을 확대해나가는 등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로스쿨 심사 불공정·편파적"

비대위 토론회서 주장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학교육위원의 제척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의혹규명과 올바른 인가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강혁신 조선대 법대 교수는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원광대가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는데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인했다"고 정치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며 "일부 대학에서 타대학 출신 사법시험 1차 합격자를 편입시켜 합격자를 편법으로 늘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가 법학교육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김한명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인가신청 대학의 교수가 위원에 포함된 경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포함해 법학교육위의 평가자료 및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국대는 이날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단국대와 조선대, 홍익대, 영산대도 마찬가지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25개 예비인가 대학이 참석한 가운데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협의회를 22일 오후 갖는다고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연합뉴스

노인 1인당 진료비 연간 200만원 돌파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00만원을 돌파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8만7천명으로 건강보험인구의 9.2%를 차지했고, 노인 진료비는 연간 9조1천189억원으로 1인당 200만원을 넘어섰다. 노인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2000년 6만2천258원에서 2007년 17만3천217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지역별 건강보험진료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노인비율이 12.2%로 가장 높은 전남의 월평균 진료비 지출액이 6만7천9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안현주기자 ahj@·연합뉴스